

몸살

다산인권센터 회원소식지

- #1-1 명환아 오렌지야 너 참 잘 살다 갔구나
- #1-2 시민의 감시로 경찰을 바꾸자
- #1-3 5월 삼성을 바꾸는 운동을 점화하자
- #2-1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한도전
- #2-2 기본급 98만원 뒤에 가려진 인권활동가들의 삶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3-1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3-2 2015 인권공부방 봄강좌 오래된 상처 분단된 땅 스케치
- #4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5 그림책 할아버지의 서재 바바야가 할머니
- #6 활동보고
- #7 결산보고

2015
4,5,6





명환아,
오렌지야...
너 참 잘 살다 갔구나.

글/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1-1
몸살특집

오렌지야, 명환아.

너 때문에 청소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삼우제 마치고 돌아와 변기 밑까지 손을 넣어 닦았다. 너 때문에 미뤄뒀던 것도 아닌데, 세탁소에 맡길 겨울 옷들을 모두 꺼냈다. 몇 시간째 쏙고 닦고 꺼내고 넣고 수선을 피웠더니 모든 게 새삼스럽다. 그 사이 우리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써 생각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구나. 지난 몇 주, 네 심장을 대신하던 에크모(ECMO)와 깨어날 듯하던 순간들과 포기하던 순간들 간격이 너무나 짧았던 기억까지 모두...

임종 시간과 장례를 시작하던 시간, 너를 찾아온 많은 이들의 눈물과 입관하러 들어가던 네 낯선 얼굴들까지 모두, 정말, 있었던 일인가 싶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네가 없다는 것. 그게 또 떠오르니 뭐 더 청소할 것은 없는지 두리번거리게 된다.

이별이란 원래 갑작스럽다 하더라. 준비된 이별이라고 느긋할 수 없다더라. 이별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더라. 후회는 그래서 뒤늦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게 돼서 미안하다. 잘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한 겨울 얼음 씹으며 와삭거리는 이유도 묻지 않았다. 다만 유별스럽다 생각했다. 묻기만 했어도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물 한 모금 벌컥 마시지 못해 얼음 씹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말이다.

전화 받지 않는 너를 구박했었다. 부탁한 일인데 책임감 없다 생각했었다. 투석이 얼마나 피 말리는 고통인지 좀 더 세심했으면 알았을 것이다.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다 생각하고 말았다. 무엇이든 눈을 빛내며 궁금해 했다. "박진, 이걸 뭐냐?"고 늘 조심스레 물었다. 지나친 진지함과 남다른 따뜻함이 부담스러워 건성으로 대답했다. 뭐든지 오지랖이고 언제나 넘친다 생각했다. 12살에 걸린 병, 16살에 홀로 상경해 살아내기 위해 쌓은 조심스러움 인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이 자상했던 것을, 사람들 추억을 통해 재구성하고 알았다.

그러지 말 것을... 부질없는 후회의 순간들

각막과 장기 기증 딱지가 네 주민증에 붙어 있었다. '아무렴, 오렌지 답네...' 그런데 2주 동안 제 기능 하지 못한 장기는 남에게 줄 수 없는 상태였다. 숨넘어가던 순간 네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구 적출 위한 수술대에 올리지 못했다. 살아온 삶만으로도 안구나 장기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기에 네 유지를 받들지 못했다.

네가 어떻게 살아온 것인지, 장례기간 내내 확인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마웠고 너를 찾게 한 네 삶에 감사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죽는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장례 오신 분들이 말했다. 죽는 순간까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런 네가 자랑스러웠다.

2008년 너를 만났다. 광화문 촛불 열기가 잠잠해졌던 때, 수원 작은 촛불에 찾아왔다. 신장병 환자며 수급자라 소개했다. 신장 이식 받았지만 다시 투석중이라 얘기했고 검도 사범이라 말했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해서 나왔다 말했다. 꼬박꼬박 출석부에 도장 찍는 너를 보며 다산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 해 보지 않겠냐 물었다.

그러지 말 것을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면, 네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꾸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토록 거칠고 메마른 땅에 널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했다. 촛불 들다 사그러질 때 쯤 다른 흥미 거리 찾아 떠났을지 모른다. 네 한 몸 건사하며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도록 했어야 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만나거나, 쌍용차, 용산, 안산, 세상의 모든 현장 속으로... 무거운 사진 가방 메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았을지 모른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밤샘 집회 사이 캵사이신 흠뻑 맞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 이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 말했는데 그것도 깊이 듣지 못했다. 네 짧은 생애 기름을 부었던 것은 아닌지 아프다. 부질없는 후회의 순간이 너무 많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피곤하면 피자 한판 먹고 잠든다 말할 때 눈치 챌어야 했다. 신장 환자는 피로하면 안 되고 짠 음식 피해야하는 것을 다 늦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가방 무게 줄이라고 잔소리 더 했어야 했고, 잠 못 잘 부탁은 하지 말아야 했다. 혹시라도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해줘야 했는지 소상히 들어야 했다. 그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네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 우리에게 남겨두렴

지인 만나러 갔다 병원 벤치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2주간 깊은 잠에 든 너를 보며, 살려고 그랬나 싶었다. 살려고 오렌지가 병원에서 쓰러진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간 동안 보고 싶은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그랬던가 보다. 좋아지는 소식 없이 조금씩 스러지는 네 생명의 시간들, 많은 이들이 다녀갔고 많은 이들이 치료비를 모아주었다. 회복을 기원했다.

쓰러진 지 딱 2주, 6월 10일 오후 2시 40분 영원히 깊은 잠에 들 때 쯤 깨달았다. 오렌지가 보고 싶은 이들이 참 많았음을.

"이 늙은 시키. 민중항쟁의 날 갔네... 4시 16분... 4.16시간에 맞추지는 못했네... 그거 맞출려고 버텼을 거야, 오렌지 답다, 참..."

그렇게 우리를 한 번 더 웃게 해 주었다. 너는.

네 장례식은 발 디딜 틈 없었다. 다산인권, 인권교육 온다, 반올림 식구들, 수원촛불, 수원지역 선후배, 골목잡지 사이다, 인권활동가, 사진작가,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 쌍차, 기륭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주노총, 아 뭐 그리 아는 사람들이 많던지... 네 덕분에 알게 된 샘터야학, 신장병 환우회(메르스 때문에 정작 제대로 병문안도, 조문도 못 온 이 분들이 가장 마음 아팠다).

아프고 병중이던 삶이 언제나 걱정과 근심거리였을 가족들에게 마지막 순간, 점수 모두 만회했기를... 가수 박준씨는 추모제에 달려와 너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다. 꽃다지의 '당부'였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35살. 살아갈 날은 더 이상 없지만, 다시 돌아간대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수 있겠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거기 언제나, 누군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게 해준 친구. 그래서 위대한 친구."

누군가 그러더구나. 너를 위한 추모제를 모두 마쳤을 때... 사실 너는 그렇더구나. 영정 들고 다산인권센터 사무실과 수원역, 네가 살던 집, 삼성전자 앞을 지날 때... 너를 모신 유골함 들고 납골묘로 걸어갈 때. 오렌지가 있었으면 이 모든 순간을 빨빨 뛰어다니며 기록했을 거야. 언제나 거기 있었기에 있는 줄도 몰랐던, 너의 부재를 하나씩 발견하며, 웃는 연습도 해야겠지.

참 열심히 살다간 친구, 참 치열하게 싸웠던 동지, 무수한 수식으로 장식할 수 있음을 보내고야 깨달았다. 고맙다. 오렌지. 네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 우리에게 남겨두렴. 다시는 아프지도 말고 다시는 가난하지도 말고 다시는 외롭지도 않을, 그 세상에서 쉬고 있으렴. 연화장 추모의 집에서 그토록 마음 아파했던 단원고 친구들 만나면 사진 예쁘게 찍어주고... 세상이 그들과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주렴.

고마웠다. 샘터 야학 작은 새 반 명환아, 신장 환우회 1등 팔뚝감 엄명환,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촛불, 반올림의 오렌지.

굿나잇 굿럭(Good Night Good Luck). 참 잘 살다 갔구나. 명환아, 오렌지야.

※ 이 글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진님이 같은 제목으로 6월 15일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의 감시로 경찰을 바꾸자!

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2
몸살특집

4.11/4.16/4.18/5.1~2 세월호 집회에서 인권활동가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활동했습니다. 세월호시행령 폐지를 주장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은 단지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로 간 것뿐인데, 경찰은 차벽, 캡사이신, 물대포를 앞세워 가로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부상을 경험했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몇몇 시민들과 활동가들에게는 영장까지 청구, 발부되었습니다. 참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 감시뿐만이 아니라, 경찰력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력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4월 30일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와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물리력을 사용하며 말하고 모여 행동할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5월 1일 파바를 넣은 물대포를 사용했는데, 당시 안국역 일대에 있던 사람들은 심한 구토와 매스꺼움, 눈과 피부 따가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은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넣었고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고발 지속될 때 변화의 가능성 열려

집회의 권리를 침해/방해하는 경찰력 행사에 대한 항의와 사회적 비판/고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경찰을 통제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의 모습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집회에서 경찰력 행사가 법과 인권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항의하고 감시하는 활동은 이후 경찰력에 대한 비판과 고발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집회의 자유 실태와 경찰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분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과 분석의 내용들을 축적하여 전반적인 경찰력 행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공동대응을 위한 자료로 소송, 진정 등 후속작업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지침 등 제도가 문제라면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 입법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캡사이신 등 장비사용을 지금처럼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집시법을 전면개정해서 ‘차벽’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차벽으로 쓰이는 경찰버스를 당장이라도 압수해서 교통사각지대에 투입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경찰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을 향한 시민감시의 힘이, 국가를 바꾸고

<p>경찰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p> <p>집회방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 시민들과 함께 근거 조항과 판례를 외치면서 책임자에게 불법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경찰의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남겨주세요.</p> <p>[제보: 인권침해감시단 0416free@gmail.com]</p>	<p>1 불심검문</p> <p>경찰이 소속과 검문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문하면 위반.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경직법 3조 1항, 7항)</p>	<p>경찰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p> <p>집회방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 시민들과 함께 근거 조항과 판례를 외치면서 책임자에게 불법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경찰의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남겨주세요.</p> <p>[제보: 인권침해감시단 0416free@gmail.com]</p>	<p>3 채증</p> <p>채증사진은 충돌상황 혹은 그 직전에만 사용 가능. 충돌이 없거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돼요.(채증활동규칙 2조)</p>	
<p>경찰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p> <p>집회방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 시민들과 함께 근거 조항과 판례를 외치면서 책임자에게 불법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경찰의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남겨주세요.</p> <p>[제보: 인권침해감시단 0416free@gmail.com]</p>	<p>2 물포</p> <p>물포로 치사하는 경우 가습 이하로만 해야 해요.(물포운용지침)</p>	<p>경찰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p> <p>집회방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 시민들과 함께 근거 조항과 판례를 외치면서 책임자에게 불법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경찰의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남겨주세요.</p> <p>[제보: 인권침해감시단 0416free@gmail.com]</p>	<p>4 차벽</p> <p>경찰차벽으로 집회를 가리고 시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어요.(헌법재판소 2011.6.30. 2009헌마406결정)</p>	
<p>경찰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p> <p>집회방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 시민들과 함께 근거 조항과 판례를 외치면서 책임자에게 불법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경찰의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남겨주세요.</p> <p>[제보: 인권침해감시단 0416free@gmail.com]</p>	<p>5 해산명령</p> <p>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미신고집회라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행하겠다고 방송하는 것은 불법 (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p>	<p>경찰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p> <p>집회방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 시민들과 함께 근거 조항과 판례를 외치면서 책임자에게 불법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경찰의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남겨주세요.</p> <p>[제보: 인권침해감시단 0416free@gmail.com]</p>	<p>7 경찰신분확인</p> <p>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신분을 밝히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요.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는 경찰에게 이름과 소속을 밝히라고 항의합니다. (프랭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조사 이후 한국경찰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p>	
<p>6 모욕죄</p> <p>경찰에게 욕했다고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경찰력 남용입니다. 모욕죄 헌법범으로 체포, 연행하는 것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체포에 해당합니다.</p>				<p>[연행되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행되었을 때 416연대 고객센터(02-2285-0417)에게 연락 주세요. ▶ 영장없이 핸드폰을 요구할 때 거부하고,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에는 <검정한이유를 요구해요 이 때 <형의 관련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녹음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주세요. ▶ 변호인선임권, 친술기부권(신원포함), 접근교통권, 진료권 기타 일련의 행동자유권(수면/위식)을유/씻기 등을 요구하고 행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감시단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요?

종종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저희들을 특별하게 보기도 합니다. 인권침해 감시단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은 ‘시민항의’를 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은 적법하고 인권침해 없이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 현장에서 경찰력을 견제하는 역할은 시민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월호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의 항의 못지 않게 위법한 경찰력에 대한 시민항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경찰을 그저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해하는 경찰에 맞서 조목조목 따지고 항의하는 모습이 제게는 큰 뒷배가 되었습니다.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은 그 자체로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 유엔 역시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을 통해 인권옹호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문’의 핵심적인 정신은, ‘모든 사람은 인권의 증진, 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면서, 이를 위해 △평화적 회합 또는 집회 △비정부기구, 협회, 또는 단체의 결성, 가입 및 참여 △비정부 또는 정부간 기구와 의견 교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한 거리의 정치가 필요한 상황

그러나 인권옹호활동은 검경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권영국 변호사님의 경우 집회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되어 영장청구까지 하는 등 감시단을 다양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인권활동가들도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소환장을 받아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이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에 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검경의 작태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꾸린 인권침해 감시단은 과거와 달리 규모있게 조직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자평합니다. 변호사,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결합했기에 가능했고 이후 보고서 작성이나 법적 대응 등 후속활동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세월호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다시금 시행령 개정을 위한 거리의 정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월, 삼성을 바꾸는 운동을 점화하자!

글/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1-3
몸살특집

한해 20조원의 순이익을 내고, 그룹 자산가치가 300조를 넘는 삼성그룹의 “주인 아닌 주인”자리에 누가 언제 앉을지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그룹전반을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

동네 구멍가게를 주인 아들이 이어 받는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삼성은 구멍가게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경영권 세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삼성이 주는 영향력이 크게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삼성의 경영자를, 부당한 방법,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대를 이어 경영권을 세습한다고 할때는 얘기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로 이어지면서 숭한 인권침해, 노동조합탄압을 일삼았고, 아직도 이를 해결하지 않았다.

여기에 경영권세습을 위해서 그룹 구조조정을 단행해, 4개 계열사를 매각했다. 그러나 4개사 매각이 삼성에게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매각 과정에서 회사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다. 이재용 3남매가 그룹 승계 과정에서 그룹 구조를 간편화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다. 결국 이윤의 논리도, 산업구조재편의 논리도 없이, 총수 일가의 그룹지배를 위한 도구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 이름표를 바꿔 단 것이다. 매각당한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아침에 다른 회사에 팔렸다는 배신감과 함께 향후 한화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 몰려 왔다. 이런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안은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건설로 이어졌다.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 세습을 앞둔 시점에서 삼성그룹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노동조합을 더 많이 접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은 그동안 불법정치자금과 비자금, 공정거래법 위반, 떡값을 뿌리며 사법권을 주물러왔다. 20대 초반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하여, 100여명이 넘는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죽어갔지만 삼성의 재발방지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진심어린 사과도 없었다. 2014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삼성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첨단 상품을 만든다는 삼성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전근대적이다.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 하며, MJ사원, NJ사원으로 낙인찍고, 노동조합활동을 사찰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납치까지 일삼고 있다.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재용부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고 싶다면 선대가 뿌려 놓은 전근대적인 악습을 일소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사람들로 부터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런 변화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이 이제 차기 삼성을 이끌 경영자들에게 삼성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알려줄 수밖에 없다.

올 5월에서 9월 10월로 이어지는 시점에 삼성의 경영권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영역이 삼성문제에 더 적극적인 관심과 삼성의 전 근대적인 인권침해, 불법경영 문제를 바꾸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재용부회장은 이미 제일모직 대주주로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이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완전하게 이어받기 위해서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때 내야하는 상속세가 대략 6조 안팎일 것으로 추산되며, 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일 게다. 이 비용은 그룹 전체 지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삼성 SDS주식을 팔아서 낼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삼성SDS 주식은 지난해 5월 상장돼, 올 5월 13일이면 (대주주)보호예수가 풀리며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 최근에는 SDS 주식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커지자, 이 주식을 팔지 않고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삼성SDS 주식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불법적으로 발행해 얻은 범죄수익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에 감당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며,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미 국회에는 박영선 의원이 이재용부회장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특정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일명 “이재용특별법”을 제출 중이다.

이 법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더 두고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세습하려던 삼성으로서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재용부회장의 재산형성과 경영권 승계가 사회적으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를 두고 다시 한 번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승계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면 될수록 삼성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요구받아온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문제를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미는 이재용특별법을 국회에 던져 놓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삼성이 저질러 온 악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삼성이 저질러온 악행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려야 한다.

한국 사회가 삼성문제 특히 삼성의 노동인권침해, 그리고 불법편법적인 경영방식과 그 세습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삼성 왕국의 영토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재용부회장의 부당재산 환수,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삼성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이재용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그가 삼성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이 정당한지 국민들에게 묻는 여론 작업이 필요하다. 5월 이후 사회각계 각층, 언론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과 관련한 여론 조사 작업이 시행될 것이다. 이때를 적극 활용하자.

오렌지의 고마운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故엄명환 (오렌지가좋아) 가는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오렌지를 외롭지 않게 잘 보냈습니다.

오렌지는 현재
수원연화장 추모의 집 지하 1층 001번방 23825번
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며가며 지나는 길에 들러 오렌지의 말벗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오렌지 프로젝트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 213 2105) -

* 모아주신 치료비는 오렌지를 기억하는 사업에 쓸 예정으로,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여러분의 뜻을 모으겠습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한도전

글/ 허기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1
인권이슈

결국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요상한 명칭의 미술관이 탄생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지난 21일 수원시의회에서 통과 된 것이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붙었다. ‘향후 미술관 명칭과 운영에 대하여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10월 개관을 앞두고 조속히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수원시 집행부의 입장과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상품명이 붙은 공공미술관 명칭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봉합되어 버렸다.

대기업 이름 앞에 권고 사항이 되어버린 '문화 공공성'

시간을 뒤로 돌려보자. 지난 5월 14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실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 날은 수원시가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안)이 상정되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초반부터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시의원들은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례는 일단 통과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참고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수원시의회에서 34개 의석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18석,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5명, 새누리당 소속 4명이다. 곧 정회가 선포되어 의견조정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 결국 투표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5:4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다뤄진 것이다.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한명숙 시의원이 반대토론으로 “명칭에 문제가 있으니 조례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두 차례 정회 끝에 나온 결론이 바로 위에 설명한 ‘권고’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의 관계자들은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 방청을 들어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자칫 미술관의 명칭문제가 소위 진영논리에 휘둘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수미네는 상임위가 끝난 직후 본회의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였다. 공공미술관의 명칭문제는 비단 명칭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본회의까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적을 떠나 우리의 문제제기가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당장 필요했다. 결국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

지난 17일, 일요일이었지만 21일 본회의까지 100시간동안 한창 지어지고 있는 미술관 옆에서 놀기로 작정을 했다. 일명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100시간의 무한도전’. 갖다 붙인 이름 치곤 거창했지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특별한 프로그램도 누가 와서 함께 놀아줄지도 미지수였다. 일단 잠을 자야하니 텐트부터 쳤다. 그늘하나 없는 광장에 동네 카페에서 빌린 파라솔도 쳤다. '시민카페'라는 종이쫄가리도 부쳤더니 그럴 듯 했다.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으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침, 요가를 잘 하는 분이 있어, 즉석으로 요가강좌를 시작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다. 미술관 명칭 때문에 나와 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감을 해주셨다. '미술관 명칭에 불만 있는 사람들의 토크쇼'도 진행되고, 길거리 특강도 진행했다. 피켓 들고 홀라후프도 돌리고, 24시간 미션을 스스로 정해 미술관 명칭 문제를 알리는 이들도 있었다. 연도 날리고, 아이들과 축구도 했다.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다. 물론 밤만 되면 술 사들고 오는 시민들 덕분에 매일 밤은 술과 이야기가 이어졌다.

화성행궁광장이 조성된 이래 시민들의 난장이 펼쳐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행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술관이 들어설 위기에 처해있지만 덕분에

광장에서 난장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렇게 100시간이 흘렀다

대기업의 투자방식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어지럽히는, 난장

결국 조례는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비록 빠른 시일 내에 명칭문제를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해 수정된 조례를 상정하라는 시의회 의원 권고가 있었지만 수원시는 그럴 의사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모든 권한과 예산과 의사결정 수단을 쥐고 있는 행정은 대기업의 기부라는 알뜰한 투자방식 앞에 문화와 공공성을 선뜻 내주고 말았다. 정당한 문제제기는 '사람이 반갑다'는 수원시청 입간판 아래 멈춰 섰다. 소위 기부를 한다는 현대산업개발이 갑일까. 아니라면 수원시는 왜 현대산업개발에게 명칭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가.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공공미술관 명칭이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몽규 대표이사의 '구두약속'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구두약속 때문에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무시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당신의 신념이라는 논리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그 추진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도 이 알곳은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아니, 수는 단순하다. 수원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하고, 협의하면 될 문제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난장을 펼치고, 노숙을 하지 않더라도 '열린시정' '주민참여'라는 수원시의 구호처럼만 행동하면 된다. 이 단순한 해법을 수원시가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러니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오는 6월 1일부터 용산역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 화성행궁광장에서의 100시간 무한도전을 용산역 광장에서 해볼까?



기본급 98만원 뒤에 가려진 인권활동가들의 삶,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글/ 정율
인권재단사람 상임활동가

#2-2
인권이슈

며칠 전 인권재단사람으로 항의 전화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업무가 방해될 정도라 하루 종일 발신자번호를 확인해가며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분은 세월호와 관련해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청와대 게시판에 쓴 글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인권활동가가 어떻게 대통령을 악마, 괴물로 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전화를 급히 끊으려하자 자기도 인권이 있는데 무시를 당했다면서 인권단체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셨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 통화를 끝내기는 했지만 인권이 모욕당하고 더럽혀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칠게 이야기해서 너도 나도 인권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운영하는 인권문화행사가 수적으로 많아지기도 했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인권을 다루는 공무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전보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고 있음이 반갑기도 하지만 인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인권운동의 사회적 의미가 잘 알려지지 않다보니 인권활동가들의 존재도 역할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권활동가는 사회적 약자 . 소수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권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도 합니다.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용되고 훼손되지 않게 끊임없이 인권을 재정의하는 이들이 인권활동가입니다. 무엇보다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고 열악한 삶을 사는 이들 스스로 인권을 선언할 수 있게, 고난과 굴욕에 도전할 수 있게 끊임없이 추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인권활동가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권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권활동가들이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는지, 생활하면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앞으로 인권운동을 지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인권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총 76명의 인권활동가가 온라인 설문에 참여해주었고, 10단체의 10명의 인권활동가를 직접 만나 심층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날마다 인권침해현장을 종횡무진하며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지, 그리고 이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할 해 줄 지 걱정도 있었지만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권운동의 지속성을 위한 방법을 찾는 .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초점을 맞춘 것은 인권활동가들이 받는 활동비와 생활이었습니다. 저 역시 비켜갈 수 없는 문제였기에 이들이 남긴 설문 응답 하나하나 꼼꼼히 보려고 했습니다. 평소 높은 월세와 공과금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다른 활동가들은 어떤 걱정을 하며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 내용을 보면서도, 심층면접에 참여해 준 인권활동가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고민과 만나는 지점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인권활동가들은 기본급 98만원 (상임활동가 107만원)이라는 최저임금 미만의 활동비를 받으며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쳐도 최저임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대상 단체 가운데 13개 단체는 활동비를 전혀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들까지 포함하면 평균 활동비는 더 낮았을 것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 기준이 약 117만원입니다. 단체 후원여건은 좋지 않았지만 활동비 117만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권활동가들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하루 10시간 넘는 장시간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연월차 휴가를 쉽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휴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휴가상여비를 지급받는 인권활동가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평균 2~3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권현안을 쫓아다니기도 바빠 후원회원을 늘려가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업무분담도 쉽지 않아 심지어 아파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한 활동가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악전고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을 심층 인터뷰한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카드빚 때문에 독촉전화를 피했던 에피소드며, 평일에는 인권단체에서 주말에는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던 그 시간이 매우 소중한 기억입니다. 서울에서 인권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럽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지역의 인권활동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 지 고민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인권활동가로서 사는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적게 쓰는 삶이 익숙해도 자기보다는 타인이 겪는 어려움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게 이들입니다. 인권활동가들의 욕심은 과하지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인권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만은 매우 컸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최저임금에 준하는 활동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비용과 시간을 제공하는 안정적인 쉼을 바랐습니다. 물론 활동비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인권활동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권활동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과 인권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도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당장 인권단체의 재정구조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후원자가 하루에 몇 십 명씩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활동경력이 더 많아질수록 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권활동가로서 자기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사회구성원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듯 보이지만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사회적으로 매우 유의미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이야기하고 평화로운 삶, 존중받는 삶, 사회적 약자 소수자 편에 서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들입니다.

인권재단사람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활동가들의 삶과 이들이 사회변화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리려합니다. 당장은 인권활동가를 위한 사회적 기금이 필요합니다. 먹고, 쉬고,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이라도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권단체들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 가능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단체의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권활동가들에게 든든한 뺨이자 지원군으로서 더 많은 분들이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인권활동가 지원을 위한 365기금에 함께해주십시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9-833027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 인권재단사람 홈페이지(<http://www.hrfund.or.kr>) 자료실에 방문하시면 연구자료 결과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글/ 이정수
다산인권센터 벚바리, 수원여성회 회원

#3-1
자유기고

그 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원에 오시는 일정이 있으면 종종 참여를 하곤 했었지만 1주기만큼은 광화문에서 꼭 유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18일, 25일 주말 집회와 5월1일~2일 범국민 철야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광화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보면 혼자 갔고, 남편이 일이 있어 못 보는 날은 애들을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도 왠지 위축감을 들게 만드는 분위기

아이들을 데리고 간 날은 여지없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아이까지 동원해서 집회에 참여한 엄마의 모습이 희한하고 궁금한가 봅니다. 기사거리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인데 그것을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희한하다 느껴졌습니다.

추모 문화제에 참여해보니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차벽’, ‘엄청나게 많은 수의 경찰들’, ‘캡사이신’, ‘물대포’....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도 왠지 위축감을 들게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올해 7살인 딸 지후가 “경찰들이 우리에게 왜 그래?”, “경찰 방패는 단단해?”, “우리 잡혀가는거야?”, “캡사이신이 뭐야?” 하고 물을 때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 하면 “그러니까 거기를 왜 갔어?”, “어찌려고 애까지 같이 데리고 간 거야?”라고 대꾸하면서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유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함께 추모하고 숨김없이 진실을 밝히려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걸로 치자면 평화로운 집회 현장에 차벽을 세우고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가지고 나와 시민들에게 쏘아댄 경찰이 더 이상한데 말입니다.

숨기는 자 범인이다!

제가 그 현장에 애까지 데리고 갔던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집회와 추모제에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은 유가족과 추모하러 온 시민들을 매번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시민들이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추모제에서 사람들과 함께 외친 구호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기는 자 범인이다!

‘산 사람은 좀 살자’며 유가족들에게 그만하라고 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월호의 진실이 규명되건 말건 상관없이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가족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수 있길’ 바라고 유가족의 이웃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이

외치는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식 잃고 슬퍼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려 내 자식과 함께 광화문에 갔는데, '거길 왜 갔냐'라는 말을 들을 일인지, 경찰에게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맞을 일인지 다시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보이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그 소소한 의문들도 풀리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유가족의 곁에서 세월호의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당신,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고 외쳤던 당신,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선언할 것입니다.
앞서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며
달라져야 할 것을 고집하는 세력에 경고하며
우리 스스로 인권의 목록을 써내려갑니다.
2016년 4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416인권선언을 선포합니다.
함께 선언하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인권입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으기 위해,
풀뿌리토론을 열어줄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풀뿌리토론을 1회 열어야 하며,
2회의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 * 1차 전체회의는 7월 11일(토) 오후 1시, 천도교 수운회관(3호선 안국역)에서 열립니다.
- * 2차 전체회의는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모아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7월 4일까지 416인권선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416act.net/416declaration>



2015 인권공부방 봄강좌 〈오래된 상처, 분단된 땅〉 스케치

글/ 아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3-2
자유기고

지난 4월 7일부터 부터 5월 13일까지 6주에 걸쳐 '오래된 상처, 분단된 땅'이라는 주제로 인권공부방 봄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왜 분단문제?'라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에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분단체계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맥락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인권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세 개의 소주제(평화 체제, 북한문화, 북한인권)별로 진행된 총 여섯 개의 강의 내내 진지하고 열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을 살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첫 번째 주제였던 '평화체제'를 강의해주신 분은 '경기남부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의 한상진 선생님이셨습니다. 강사님은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참석자들에게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뭐랄까... 허를 찔린 느낌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아, 맞다. 통일... 통일 해야지... 근데 왜 통일을 해야 하지?' 저 뿐만 아니라 강좌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선뜻 대답을 내놓으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우리가 통일을 당위의 문제로만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보니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강사님은 통일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인 상과 계획을 가지고 다가갈 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에서는 그 구체적 방법 중의 하나인 '평화협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점은 지금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지만 통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다보니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정전상태라는 것을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던더라고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문화'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한빛지역사회연구소 양훈도 선생님은 남북이 분단된 채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논쟁이 적을만한 문화 부문 같은 것에서부터 교류를 재개하면 어떨까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금강산 관광도 가고 여러 부분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교라는게 자기 기분 나쁘게 한다고 '너랑 안 놀아'라고 해 버릴 수 있는 소꿉놀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아이들은 싸워도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놀기라도 하지 정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아이들의 소꿉놀이 수준만도 못한 것 같아 한숨이 절로 .

났습니다.

마지막 강사로 서주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선생님의 강의 중에는 북한 인권의 문제를 북한 내 인권, 탈북자 인권의 문제로 협소하게 보지 말고 인도적 문제 평화권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하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북한으로 전단 날리는 것을 용인하는 것도 북한인권을 협소하고 선별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연 그런 접근 방법이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북한인권문제는 인권과 평화, 인권과 화해를 함께 고려해야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자주, 많이 말하고 구체적인 상상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어가야 통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통일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분단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해결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종북'으로 몰면서 논리적 주장이나 대화 일체를 단절시키고 무력화 시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들이 용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주변에서 통일에 대해 좀 더 자주, 많이 말하고 구체적인 상상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을 향해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런 상상과 고민들이 밑으로부터 모일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요.

#4 활동가 첫인사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로운(온)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아샤



벗바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의 파릇파릇한 새내기 활동가 아사라고 합니다. ‘몸살’에 인사글 비슷하게 한 번 써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때 내 꿈이 뭐였던가를 돌이켜보고 지금의 제 삶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지하게 고려했던 제 꿈은 기자였습니다. 뭔가 폼나 보이기도 하고 기자가 되어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들춰내보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고 3 여름 쯤 우연히 음악치료사라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교에서는 심리학을, 대학원에서는 원하던 음악치료를 전공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상담소 같은 곳에서 경험을 쌓은 후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대학원 졸업 후 상담소 취업 자리를 알아보다가 수원 여성의전화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전화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치유하는 것 못지않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가능케 하는 이 거대한 사회적 구조에 대항하고 이것을 변화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 음악치료사를 꿈꾸며 그 곳에 들어갔던 저는 어느새 활동가가 되어있더군요.

그럼 여성의전화에서 잘 활동하고 있던 제가 어떻게 다산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음..... 그러게 말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항상 남의 풀밭이 더 푸르게 보인다고요.(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아마도 인권이라는 좀 더 넓은 범주 속에 여기저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다산에 대해서 동경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간 활동하면서 마음으로만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 곳곳에 다산 활동가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늘 부채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저런 곳에서 일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종종 궁금했었습니다. 엄청 힘들고, 몸고생 마음고생이 많겠지만 활동가로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도 있었구요.

다산의 어떤 활동가는 그런 이미지는 단지 이미지일 뿐이라고, 막상 와서 활동하다 보면 실망할 일이 많을 거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인용한 표현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남이 풀밭이 더 푸르게 보이는 거라구요. 진짜로 더 푸른 게 아니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산에서 활동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다산이라는 풀밭이 얼마나 푸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미하나마 저의 활동과 능력을 보태어 다산의 풀밭을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푸르게 혹은 좀 더 알록달록 다채롭게 만들고 싶어서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일 것 같구요, 지금으로선 어서 빨리 1인분의 몫을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있어보니 다산의 일은 계속 늘면 늘었지 잘 줄지는 않더라구요.^.^ 요즘엔 선배 활동가들을 따라 다니면서 현재 다산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3명 모두 활동 스타일이나 강점이 다르다보니 배우는 점이 많은데요, 그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나는 어떤 인권활동가가 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지 자문하게 됩니다. 제가 워낙 우유부단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하게 정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권공부방 봄강좌가 끝나고 강좌에 참석해주셨던 분들과 활동가들이 뒷풀이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깊어짐에 따라 두 선배 활동가들의 대화도 점점 깊어져 갔는데요, 저는 신입의 마음으로 경청을 하고 있었죠. 저도 약간 술이 들어간 상태라 모든 대화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인권운동은 본질적으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이거다'라는 느낌이 났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자. 필요한 곳에 당당하게 인권의 잣대를 대고 불화를 요구할 수 있는 자. 그런 활동가가 되어야겠다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인권활동가로서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그 기본을 갖추려면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끊임없이 용기 내어 말하고, 글 쓰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부딪히면서 기존의 현실과 불화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봐주세요. 앞으로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슈들로 벅바리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5
책&영화 읽기

-그림책 할아버지의 서재-
〈바바야가 할머니〉

글/ 양훈도
대안미디어 너머 대표

변명부터 하지요. 서두에 지지한 변명 늘어놓는 글 치고 변변한 걸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10일부터 뜻한 바 있어 그림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래 꿈꾸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달 남짓입니다. 왜 그림책이냐구요? 답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대안미디어 너머>에 들어가셔서 [그림책 할아버지의 서재] 첫 편을 찾아보시던지...

그러니까 요점은 소개할 그림책을 제대로 봤는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10년쯤 후엔 진짜 제대로 볼 것이라 확신하며, 제가 본대로 그림책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논평 환영합니다. 이메일 주소도 <너머>에 있습니다.

아이를 주식으로 삼는 마귀할멈

페트리샤 플라코의 『바바야가 할머니』(최순희 옮김, 시공주니어, 2007)를 찬찬히 훑고 나서 바바야가라는 캐릭터가 궁금해졌습니다. 러시아 민담에 등장하는, 아기 잡아먹는 마귀할멈 이상의 정보가 궁금했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모든 러시아 어린이의 공포의 대상. 해골처럼 말랐고 쇠이빨이 나 있음. 어린아이를 잡아먹음. 절굿공이와 빗자루를 들고 양손에 들고 절구를 타고 다니는데, 절굿공이로는 방향을 조절하고, 빗자루로는 자신이 다닌 흔적을 지운다고 함. 뼈로 만들어진 바바야가의 집에는 닭발이 달려 있어, 집이 걸어 다니고 춤도 춤. 흥미만점입니다. (프랑스에 세워진 노인들의 자유로운 공동체 이름이 ‘바바야가의 집’이라더군요. 관련 기사 흥미만점입니다. 찾아서 읽어보시지요. 오마이뉴스 2014년 4월8일, “삶의 즐거움은 배 아래로부터 온다-목수정이 만난 파리의 생활좌파⑧ 테레즈 클레르”)

이어 찾은 어느 기사에서 보니 러시아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정에 바바야가 동상을 세웠다는군요.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더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어 입시공포를 잊게 하겠다는 교장 선생님 아이디어라나요?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러시아 어린이에게는 우리의 ‘망태할아버지’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그림책 『바바야가 할머니』에 나오는 바바야가는 ‘마지막 마녀’입니다. 그런데 이 바바야가는 외롭습니다. 왜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바바야가가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마녀라고 수군거리는데,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며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걸 숲속에서 지켜보며 쓸쓸해하기만 하지요.

더구나 이 바바야가는 어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바바야가는 단 한 순간이라도 좋으니 아기를 안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맵소사, 아기를 주식으로 삼아야 할 마녀가 아기를 사랑하다니... 바바야가는 어느 날 어느 집의 할머니 빨래를 훔쳐

입고, 손톱을 자르고, 산발한 머리를 빗고, 삐죽한 귀는 러시아 스카프로 가린 채 동네로 내려갑니다. 바바야가를 환대해 주는 마을사람들. 같은 존재이지만 신분을 감추면 환대해 주는 인심이 웬지 쓴 웃음을 짓게 합니다.

바바야가는 외롭게 살아가는 모자(나타샤와 빅터)의 집에 찾아가서 자신이 빅터를 길러주겠다고 제안하지요. 바바야가는 집안일을 마치면, 빅터를 데리고 숲으로 가서 온갖 신기한 이야기와 전설들을 들려줍니다. 마녀의 살아있는 생태교육! 하지만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판에 끼었다가 아이들이 바바야가를 두려워 한다는 걸 새삼 절감합니다. 떠나기로 결심하는 바바야가. 빅터는 사라진 할머니를 찾아 숲으로 갔다가 늑대 떼를 만나고.....더 이상 전하지 않아도 결말을 짐작하시겠지요?

작가 페트리샤 폴라코는 러시아계 미국인입니다. 자라면서 들은 러시아 민담이 훗날 그의 그림책 소재가 됩니다. 1993년 작 『바바야가 할머니』의 그림 역시 러시아 민화 풍이라는군요. 알록달록 색동 조각보자기 같은 색채감과 인물들의 표정 표현이 정겹습니다.

근원적 공포의 극복과 우리 이웃의 타자들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관련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국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의 『그리고 산이 울렸다』 앞머리에 실린 아프간 옛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잡아먹는 거인이 농부 아유브의 사랑스러운 막내를 데려갑니다. 아유브는 아들을 찾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거인의 땅을 찾아갑니다. 반전. 거인의 손에서 매우 행복하게 잘 양육되는 아들을 목격하고, 아유브는 막내의 행복을 위해 발길을 돌립니다. 너무 축약해서 그런지 이야기맛이 살지 않지요? 아직 안 읽으셨다면 직접 한 번 펼쳐보시지요. 소설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될 겁니다.

얘기가 옆길로 빗나갔군요. 아이를 잡아먹는 마귀할멈, 거인, 망태할아버지는 왜 만들어진 캐릭터들일까요? 어린이들을 말 잘 듣게 하려고 지어낸 가공의 존재일까요? 유치한 설명이죠? 그보다는 근원적 공포를 인물로 가시화해 들려줌으로써 어린이의 심리적 성장을 돕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 더 그럴듯하지 않나요? 우는 아이 달래려고 스마트폰 쥐어주듯이, 울음 그치게 하려고 ‘바바야가 온다.’거나 ‘망태할아버지 애 잡아주세요.’라고 조자룡 헌 칼 쓰듯 불러낼 대상은 아닌 게지요. 폴라코의 바바야가 할머니나 호세이니의 거인은 그런 점에서 옛 이야기를 뒤집어 보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아이 잡아먹는 거인 이야기의 반전 스토리를 하나 더 소개하지요. 저 유명한 토미 웅거러의 『제랄다와 거인』(김경연 옮김, 비룡소, 1996)입니다. 그림책의 거장 웅거러는 꼬마 요리사 아가씨 제랄다가 아이

잡아먹는 거인의 입맛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전개합니다. 양배추 절임과 소시지 모듬, 파이 반죽에 싸서 구운 거위 간 푸딩, 송로 버섯 젤리를 곁들인 송아지 고기 튀김, 신데렐라식 칠면조 구이 그리고 ‘거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설탕물에 졸인 과일과 숟가락 모양의 비스킷. 이런 하늘나라 같은 요리를 먹고도 아이를 먹고 싶은 거인이라면 지옥불에 던져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해야 마땅하지요.

우리 곁의 이방인들도 바로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배고프고..... 공연한 사족 붙여서 죄송합니다.

■ 416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참사 1주기를 맞은 유가족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4월 4-5일 도보행진을 시작으로 4.16특별법 시행령 싸움을 시작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기 위해 유가족은 삭발을 했다. 배보상을 통한 돈으로 모욕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를 향해 1주기 추모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16일 일주기는 결국 추모식을 가지지 못했고 18일 시행령 폐기 국민행동, 5월 1-2일 철야행동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마음을 모았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유가족과 국민대책회의, 풀뿌리 시민들은 4.16연대로 모여 다시금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4.16인권선언운동과 인권실태조사 작업

참사이후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416인권선언운동이 시작되었다. 추진대회와 원탁회의, 풀뿌리 간담회등을 통해 2016년 4월 16일 인권선언제정을 선포할 예정이다. 416참사 피해자그룹을 만나고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조사하는 사업도 진행중이다. 구조와 수색에만 무능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못하거나 앓하는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사회에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함께할 예정이다.

■ 금요일에는 돌아오렴 북콘서트

세월호참사 유가족 구술집 '금요일에는 돌아오렴' 출간과 더불어 전국적인 북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부산, 고양, 화성, 평택, 수원 등의 북콘서트에 유가족과 기록단과 함께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록하는 일과 기억하는 일은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이며 동시에 함께 아파하고 손잡아주는 연대의 노력이다.

■ 재난참사기록모임

세월호 이전 참사를 기록하기 위한 구술기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구지하철, 춘천산사태, 태안해병대, 장성요양병원 등 재난과 참사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함으로써 재난의 사회적 의미를 되짚는 활동을 시작했다.

■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민관합동대책단 보고대회

지난해 10월 31일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시민/전문가/수원시로 민관합동대책단을 구성하여 집단폐사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대회를 5월 11일 진행하였다. 전문가들은 물고기 집단폐사가 화학 사고라고 결론내리며,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 화학 사고예방과 비상계획 수립 조례제정, 화학물질 사용업체등을 조사하고 대응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다. 이후 권고안 이행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유해물질 알권리모임 (가칭)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떼죽음 이후 기업의 유해물질 사용 감시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가칭)유해물질 알권리 모임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성분과 사용량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 되었을 시 대응방법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자는 문제의식을 나누고 있다. 유해물질에 대한 사고가 빈번한 요즘, 지역주민의 알권리는 사고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 인권공부방 '오래된 상처, 분단된 땅'

4월 7일부터 부터 5월 13일까지 6주에 걸쳐 '오래된 상처, 분단된 땅'이라는 주제로 인권공부방 봄강좌를 진행했다. 한반도의 분단체계와 북한문제에 대한 강좌를 열었다. 한반도의 분단체계가 미치는 한국사회 인권지형을 돌아보고, 평화를 위해 이해와 고민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다. 평화체제에 대해서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여는 사람들'의 한상진님이, 북한문화 이해에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양훈도님이, 마지막 북한인권은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의 서보혁님께서 강연해주셨다. 봄강좌는 다른 강좌보다 적은 수강생이 모였지만 진지하고 뜨거운 관심이 모이는 자리였다.

■ 4년 만에 돌아온 수원 지역운동포럼

2011년 이후 진행되지 못했던 수원지역운동포럼이 4년 만에 돌아왔다. 지역운동을 성찰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수원지역운동 포럼 2015은 세 차례의 기획포럼을 준비하여 진행했다. 우선 3월 25일 '수원시정 이대로 좋은가-4대 현안으로 짚어본 문제점', 4월 29일 '수원의 거버넌스(협치),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의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공공미술관 명칭, 북수원민자도로,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폐사 사건, 이주민 범죄예방 대책 등 수원시 중요 현안과 수원의 거버넌스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 마지막 포럼은 6월 9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전에 진행된 포럼들을 마무리하면서 시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수미네) 활동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가 들어간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으로 명칭을 확정된 상황이며, 염태영시장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의 명칭 사용에 관한 '구두약속' 때문에 시민들의 문제제기와 최소한의 절차(공청회, 토론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업과 상품의 홍보를 위한 공공시설물 이용은 '기부문화 확산' 허울아래 지역의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시민공모'와 같이 투명한 절차와 참여를 통해 공공미술관의 이름을 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던지 간에, 지역의 문화와 공공성 문제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월 결산

수입			지출				
총계		16,064,148	총계		6,027,133		
이월	전월이월	3,852,212	운영비	소계		1,410,223	
경상수입	CMS후원	10,096,920 (2,3월)		경상운영비	대출이자	76,300	
	자동이체후원	210,000			관리비	282,590	
	특별후원	1,850,900			이사적립금	70,000	
	사업수입	일반후원			일반운영비	정보통신비	222,060
일반사업				활동비		245,640	
교육사업				사무관리비		340,000	
재정사업				차량유지비		173,633	
기타수입	행사사업			인건비	기타		
	결산이자	1,516			소계		3,897,100
	기타		급여		급여	3,750,900	
차월이월	차입금	52,600	복지후생비		식대	146,200	
	차월이월				경상사업비	상여금	
						자원활동가 지원비	
						기타	
			사업비		소계		719,810
					일반사업비	우편발송비	
						인쇄비	
				기타			
				연대사업비	교육사업비		
					행사사업비	80,000	
		기획사업비	110,520				
		현안사업비	184,290				
		기타					
		분담금	100,000				
		후원금	95,000				
		기타	150,000				
					11,641,895		

#7 결산보고 (3,4,5월 분)

2015년 4월 결산

수입			지출					
총계		18,238,295	총계		6,596,400			
이월	전월이월	11,641,895	운영비	소계		1,796,450		
경상수입	CMS후원	4,969,760		경상운영비	대출이자	76,300		
	자동이체후원	210,000			관리비	194,270		
	특별후원	1,850,900			이사적립금	90,000		
	일반후원	600,000			정보통신비	226,240		
사업수입	일반사업			일반운영비	활동비	229,220		
	교육사업				사무관리비	615,420		
	재정사업				차량유지비			
	행사사업				기타	365,000		
기타수입	결산이자			인건비	소계		4,060,760	
	기타				급여	급여	3,750,900	
	차입금	350,620			복리후생비	식대	309,860	
						상여금		
						자원활동가 지원비		
						기타		
					사업비	소계		660,490
						경상사업비	우편발송비	13,190
							인쇄비	
							기타	
						일반사업비	교육사업비	
			행사사업비					
			기획사업비				219,900	
			현안사업비				277,400	
			연대사업비	기타				
				분담금		50,000		
				후원금	50,000			
				기타	50,000			
차월이월						11,641,895		

2015년 5월 결산

수입			지출					
총계		19,492,175	총계		5,031,220			
이월	전월이월	11,641,895	운영비	소계		935,980		
경상수입	CMS후원	5,796,380		경상운영비	대출이자	76,300		
	자동이체후원	200,000			관리비	153,400		
	특별후원	1,850,900			이사적립금	80,000		
	일반후원				정보통신비	274,300		
사업수입	일반사업			일반운영비	활동비	40,850		
	교육사업				사무관리비	120,000		
	재정사업				차량유지비	191,130		
	행사사업				기타			
기타수입	결산이자			인건비	소계		3,333,240	
	기타	3,000			급여	급여	3,150,900	
	차입금				복리후생비	식대	166,940	
						상여금		
						자원활동가 지원비	15,400	
						기타		
					사업비	소계		762,000
						경상사업비	우편발송비	
							인쇄비	
							기타	
						일반사업비	교육사업비	209,200
			행사사업비				330,000	
			기획사업비					
			현안사업비				72,800	
			연대사업비	기타				
				분담금		100,000		
				후원금	50,000			
				기타				
차월이월						14,460,955		

3,4,5월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신 벗바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은균 간호중 강두용 강복심 강상원 강성용 강운정 강철원 고미영 고성준 고영 광봉식 광봉재 광지숙
 광창훈 국찬석 궁경혜 권민희 권순택 권인철 권정순 길은실 김갑수 김강학 김경숙 김계향 김관일 김근영
 김기현 김길순 김노진 김대술 김대용 김도희 김동겸 김동균 김동근 김동우 김동현 김만희 김명준 김명제
 김명철 김문정 김미숙 김민규 김민석 김민재 김민태 김민환 김병선 김병수 김보경 김상곤 김상기 김상순
 김상욱 김상호 김선미 김선형 김성종 김성중 김성태 김성찬 김성희 김솔 김수영 김수영 김수정 김시연
 김아름 김영기 김영기 김영숙 김영옥 김영주 김영호 김완수 김용섭 김우진 김유현 김원규 김윤경 김윤희
 김은경 김은총 김이화 김의경 김의식 김자현 김장렬 김재영 김재욱 김정심 김중보 김중서 김중태 김주이
 김주환 김준성 김지수 김지연 김진혁 김타균 김태은 김철수 김철환 김춘희 김철준 김태교 김태환 김학성
 김화준 김향미 김현창 김현철 김형욱 김형일 김형진 김혜령 김희연 김희정 김희태 남경호 남길현 남영숙
 남지원 남현우 노민호 노수정 노영란 노완호 노정희 노창식 류용웅 류명화 문민수 문숙희 문정석 민진영
 민현주 박경화 박관우 박래균 박미향 박민수 박상일 박선희 박설규 박선화 박성희 박숙경 박영재 박용태
 박유순 박윤정 박영아 박은진 박재형 박정근 박정희 박주민 박준모 박지영 박지훈 박진 박찬 박찬병
 박철 박치현 박태현 박해상 박호철 박효진 반재운 배기성 배용석 백가윤 백수영 백아형 백종수 변상우
 사미경 서미나 서미향 서윤수 서인석 서정리 서정희 서채원 석권호 성명애 소라미 손난주 손어진 송명은
 송명훈 송용기 송원찬 송인숙 송주현 송주희 신돈 신동석 신선원 신유아 신은정 신종은 심병훈 심지연
 안금옥 안병일 안병주 안병진 안상용 안정희 안진영 안채원 양기석 양민재 양은숙 양훈도 엄명환 여운철
 염경미 오동석 오석경 오세범 오일용 오준원 오천석 오춘상 왕윤정 원선옥 원영기 우정현 유기만 유정은
 유준영 유미현 유지혜 육대웅 육성철 윤권영 윤세홍 윤영훈 윤은수 윤재훈 윤창경 윤태관 윤태기 윤희상
 윤희준 이가영 이강복 이경이 이경진 이계수 이광훈 이기만 이기원 이기성 이기자 이기주 이길순 이다예
 이동찬 이문영 이미경 이민수 이민정 이민휘 이범희 이병삼 이봉임 이상명 이상무 이상목 이상언 이상희
 이선용 이선희 이설희 이성민 이세훈 이소진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순일 이승규 이승화 이연민 이영문
 이영미 이영희 이영준 이오이 이용덕 이용석 이우상 이유휘 이원숙 이은별 이재은 이정무 이정수 이정화
 이정희 이종란 이종수 이종순 이종우 이주영 이주현 이주호 이중호 이진혁 이창림 이태형 이필주 이학준
 이향숙 이현림 이현찬 이호 이호헌 이희정 임대철 임성민 임수현 임승국 임시정 임정희 임양숙 임종혁
 임진석 임태환 임혜경 장경란 장계순 장대전 장명호 장미라 장세현 장성옥 장세민 장소영 장여경 장진욱
 장혜경 장혜진 전상천 전영신 전인숙 전창윤 정건희 정나리 정동화 정미현 정상용 정민 정연욱 정연희
 정용진 정웅 정유리 정은주 정준위 정지윤 정태욱 정태정 정현경 정현주 정혜민 정희 조건준 조명진
 조민호 조백기 조병희 조상현 조성범 조윤령 조지훈 주재억 주재철 차혜령 천진 최병호 최보라 최서영
 최성규 최용화 최유리 최윤오 최율미 최영미 최은숙 최재경 최종식 최준영 최혁진 최현모 최형규 최형국
 최화정 태상미 한건희 한경수 한도숙 한문희 한상운 한상희 한수연 한준경 한진아 함학식 함경진 황영숙
 허민 허선 허승대 허진만 허환주 허필두 현미영 홍미라 홍성표 홍영덕 홍의표 홍은화 홍인선 홍진숙
 황필규

단 체

경기대민주동문회, 법무법인 다산, 삼성 노동조합, (주)한성정보시스템

다산인권센터 벗바리가 되어주세요!

후원계좌 | 신한 : 110-062-448424 (박진 다산인권상담소) / 농협 : 116-12-264081 (노영란)

주소 : (우)442-8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남창동 91-3) 2층

전화 : 031)213-2105 | 팩스 : 031)215-4395

홈페이지 : <http://www.rights.or.kr> |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humandasan>

이메일 : humandasan@gmail.com